

한국 인터넷서점 분류체계 연구*

- 카테고리와 도서 분류를 중심으로 -

A Study of Classification System for Online Bookstore in Korea: Categories and Book Classification

곽 철 완 (Chul-Wan Kwak)**

목 차

1. 서 론	3.2 카테고리 일치도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카테고리 분류
1.2 선행연구	4.1 KDC 분류기호 일치
1.3 연구의 제한점	4.2 KDC 분류기호 불일치
2. 연구방법	5. 카테고리 도서 분류 개선방안
2.1 변인	5.1 문제점 및 특징
2.2 조사대상	5.2 개선방안
2.3 조사방법	6. 결론 및 제언
3. 인터넷서점 카테고리	6.1 결론
3.1 특징	6.2 제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인터넷서점들의 카테고리 및 판매도서의 분류의 특징을 조사 및 분석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의 8개 인터넷서점을 선정하여 각 서점의 1차 카테고리 명칭의 일치 여부와, 판매도서의 카테고리 분류를 상호 비교하였다. 카테고리 비교를 위해서 일치도 변인, 카테고리 분류 비교를 위해서 분류 일치성 변인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인터넷서점의 카테고리 일치도는 상당히 높았지만, 카테고리 분류는 판매도서에 따라 인터넷서점 간 차이가 많았다. 일부 인터넷서점에서 활용하고 있는 ISBN 내용분류기호는 판매도서의 카테고리 분류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선방안으로 서점에 판매도서 분류에 활용할 수 있는 출판물 카테고리 개발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ategories of online bookstores and to propose improvements. For the study, the category conformity was compared among eight Korean online bookstores selected: the book classification on the categories was compared from them. The results show that the category conformity was high among online bookstores, but the book classification on the categories was different on the bookstores. ISBN contents classification codes for books might not help to classify the books on the categories. Thus, the study proposes a new publication category for the book classification on categories of online bookstores.

키워드: 인터넷서점, 인터넷서점 카테고리, ISBN 내용분류기호, 도서분류체계, 출판물 카테고리

Online Bookstores, Online Bookstore Categories, ISBN Content Classification Codes, Book Classification System, Publication Category

* 본 연구는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된 것임.

**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kwak@kangnam.ac.kr)

논문접수일자: 2013년 1월 14일 최초심사일자: 2013년 1월 23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2월 2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221-247, 2013.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1.221]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터넷 발달로 인하여 전자상거래 분야도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인터넷서점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체 도서유통시장에서 인터넷서점 점유율이 다른 판매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다. 2012년 출판시장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0년에 들어서서 인터넷서점의 출판시장 점유율이 34%로 대형서점(16.42%), 도매서점(18.04%), 기타서점(30.96%)을 추월하여 분야별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에 36.80%로 증가가 되었다(한국출판인회의 2012).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물품 검색은 주로 카테고리를 이용한 브라우징이다. 이는 물품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서점은 다른 전자상거래 분야와 달리, 도서 검색에 서명이나 저자명을 이용한 키워드 검색이 많이 사용된다. 개개의 도서는 서로가 명확하게 구분되며, 구매자 역시 원하는 도서가 명확하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카테고리를 통한 도서 검색은 다른 인터넷 전자상거래 물품과는 달리 제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서점에서 카테고리의 역할이 다른 전자상거래 분야에 비해 다소 미약하지만, 도서 검색도구의 역할은 중요하다. 인터넷서점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서점에서 판매되는 도서를 정기적으로 검색하는 집단이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정현숙 외 2005). 이 집단은 관련된 키워드 검색뿐만 아니라 카테고리 브라우징을 통해 관심 분야의 도서를 검색한다고 한다.

인터넷서점의 카테고리를 통한 브라우징은 이용자가 도서의 서명이나 저자명 등을 잘 알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검색 방법이다. 이용자는 카테고리를 보고 해당 카테고리에 원하는 도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카테고리 구조와 명칭은 도서 검색에 있어서 중요하다. 특히, 일반 오프라인 서점의 이용자들은 서가 브라우징을 통하여 도서의 내용을 훑어보고 선택할 수 있지만, 도서 유통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인터넷서점에서는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서점에서는 이용자 가 원하는 도서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적합한 카테고리를 제시해야 하며, 도서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서점의 카테고리는 도서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측면에서 연구되고 조직화되어야 한다.

국내 인터넷서점은 서로 다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서점의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 판매할 도서를 해당 카테고리에 분류하고 있다. 인터넷서점 이용자 입장에서는 각 서점마다 다른 카테고리와 다른 분류기준은 도서 검색에 어려움과 혼돈을 줄 수 있다. 찾는 도서의 가격 비교를 위해서 여러 인터넷서점을 검색할 때, 카테고리가 다르거나 해당 도서가 다른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큰 불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인터넷서점의 카테고리가 서점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며, 도서의 카테고리 분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인터넷서점들의 카테고리 및 판매도서의 분류의 특징을 조사 및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1.2 선행연구

인터넷서점의 주제별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정연경(2001)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걸쳐 국내외 9개 인터넷서점의 주제별 분류체계를 KDC와 DDC로 비교 연구하였다. 국내외 인터넷서점의 주제별 분류 방식을 대분류 항목으로 비교하였고, 국내 인터넷서점의 분류항목 명칭은 KDC, 국외는 DDC와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주제별 분류체계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대분류는 일관성 유지 원칙을 적용하고, 중분류는 새로운 항목이 첨가될 수 있는 유연성 원칙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용자 계층을 반영하여 어린이, 청소년 등의 항목을 포함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특정주제에 대한 인터넷서점의 분류체계 연구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인터넷서점 교보문고와 예스24의 어린이자료에 대한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 ‘학습/참고서’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한 후, 분류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배영활 외 2008). 인터넷서점의 어린이 관련 카테고리는 교과목, 흥미, 오락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학부모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용어선정과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유효정(2004)은 6곳의 인터넷서점의 카테고리를 KDC의 기준으로 비교한 후, KDC를 기반으로 어린이자료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분류체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1차 분류는 주제를 기준으로 구분한 후, 형식, 장르, 시대구분을 하위로 두었다. 민혜영과 이성숙(2012)은 인터넷서점의 사회과학분야 분류체계를 연구하였다. 국내외 10개 인터넷서점

을 대상으로 계층별 카테고리 수와 배열 방식을 비교하였으며, 각 카테고리를 KDC와 차이점을 분야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제안으로 사회과학 분야의 카테고리를 KDC를 기반으로 11개 1차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각 카테고리별로 2차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였다.

인터넷서점은 이용자집단과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정현욱 외(2005)는 인터넷서점 이용자를 경제적 이익추구형, 정보추구형, 편의추구형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인터넷서점 이용행태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인터넷서점의 카테고리를 통하여 관련분야 도서를 정기적으로 검색하는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정현욱과 강혜영(2006)은 앞의 연구에 이어서 인터넷서점 이용 동기와 이용 행태의 결정 요인을 조사하였다. 요인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이용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편의 추구형, 대인관계 추구형, 정보 추구형 세 가지를 설명하였다. 이 중 편의 추구형과 정보 추구형은 이전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대인관계 추구형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설명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용 행태 결정 요인 중 인터넷서점 도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인터넷서점 만족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서점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편리하고 쉽게 찾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서점의 1차 카테고리만을 비교대상으로 삼

고 전체 카테고리에 대한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판매도서에 대한 카테고리 분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인터넷서점의 분류담당자에 대한 조사는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셋째, 조사대상의 인터넷서점은 국내에서 전체 도서를 취급하는 대형 서점으로 제한하였다.

카테고리 일치도는 ‘완전일치’와 ‘부분일치’로 구분하였다. 완전일치는 동일한 카테고리 명칭을 사용한 경우이며, 부분일치는 카테고리 명칭 일부가 동일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카테고리 명칭이 ‘여행과 지리’와 ‘여행/기행’ 같이, 복합 카테고리가 사용된 경우에 그 중 하나 카테고리 명칭은 일치하고 다른 카테고리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부분일치로 처리하였다.

2. 연구방법

2.1 변인

2.1.1 카테고리 일치도

인터넷서점의 카테고리 차이점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치도’ 변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카테고리 일치도는 인터넷서점의 1차 카테고리가 얼마나 동일한지 여부를 보여주는 척도로 ‘두 개의 인터넷서점 전체 카테고리 수에서 동일한 카테고리 수의 비율’로 표시된다. 예를 들면, A 인터넷서점 1차 카테고리 수가 20개, B 인터넷서점 1차 카테고리 수가 30개이고, 이중 15개 1차 카테고리가 동일한 카테고리 명칭을 사용한다면, 카테고리 일치도는 60%가 된다. 만약에 A 서점과 B 서점이 동일한 1차 카테고리를 사용한다면 일치도는 100%가 되지만, A 서점의 1차 카테고리 수가 20개이며, B 서점의 1차 카테고리 수가 30개이면서 20개 카테고리는 A 서점 카테고리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일치도는 80%로 떨어지게 된다.

$$\frac{\text{동일한 카테고리 수} \times 2}{A\text{서점 카테고리 수} + B\text{서점 카테고리 수}} \times 100$$

2.1.2 카테고리 분류 일치성

개별 인터넷서점에서 판매되는 도서가 어떻게 카테고리에 분류되는지 조사하기 위해 ‘카테고리 분류 일치성’ 변인을 적용하였다. 카테고리 분류 일치성은 조사대상의 인터넷서점 사이에서 특성 도서가 동일한 카테고리에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판매도서에 기입되는 ISBN 내용분류기호와 해당 인터넷서점의 카테고리와 일치성을 조사하였다. 이는 모든 인터넷서점이 ISBN 내용분류기호를 카테고리 분류에 적용한다면, 판매되는 도서는 동일한 카테고리에 분류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조사되었다.

ISBN 내용분류기호는 출판사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위치한 한국문현번호센터에 ISBN을 신청할 때, 선택하는 3자리 기호이다. 이 기호는 KDC 유·강 2자리를 사용하며 세 번째 자리 기호는 0을 사용하고 있다. 출판사에서 선택하는 분류기호이기 때문에 내용의 100%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KDC 분류기호와 비교하여 카테고리 분류 일치성을 측정하였다.

2.2 조사대상

국내에는 다양한 규모의 인터넷서점이 존재 하지만, 국내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표시된 인터넷서점 8곳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인터넷서점은 다음과 같다. 선정에서 제외된 인터넷서점은 일반적인 도서를 취급하기보다는 특정 분야의 전문화된 서점이거나 이용자가 많지 않은 곳이다.

〈표 1〉 인터넷서점 리스트

선정된 인터넷서점	기타 인터넷서점
예스24, 교보문고, 영풍문고, 번디앤루니스, 알라딘, 대교 리브로*, 인터파크도서, 도 서11번가	영진닷컴 쇼핑몰, 랭스토어, 신북, 북코아, 다사몰, 강컴 닷컴, 엘리트2000, G마켓

* 2012년 12월 활동을 중지함

2.3 조사방법

카테고리 일치도와 카테고리 분류 일치성을 측정하기 위해 2가지 조사방법이 적용되었다. 첫째, 인터넷서점의 1차 카테고리 일치도는 8개 인터넷서점의 초기화면에 나타난 1차 카테고리를 수집하여, 2개 인터넷서점 간 완전일치도와 부분일치도를 비교하였다. 둘째, 카테고리 분류 일치성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 중 인터넷서점에서 판매하는 도서를 KDC에 따라 유별로 50권씩 선정하여 8개 인터넷서점에서 분류된 카테고리를 비교하였다.

3. 인터넷서점 카테고리

3.1 특징

3.1.1 카테고리의 다양성

인터넷서점의 카테고리를 KDC의 주류와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도서 출판량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 판단된다. 인터넷서점의 1차 카테고리 수는 19개에서 32개로 그 수가 다양했다. KDC 주류가 10개인 것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카테고리는 KDC의 주류에 비해 세분화되었다. 예를 들면, ‘예스24’ 경우 총류는 ‘컴퓨터와 인터넷’, ‘잡지’, ‘전집’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회과학은 ‘비즈니스와 경제’, ‘사회’, ‘자기관리’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지만, ‘100 철학’이나 ‘500 기술과학’은 분야의 특성상 세분화 대신 2차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철학은 다른 분야와 함께 ‘인문’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고, 공학은 ‘대학교재’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다.

카테고리 항목도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복합항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교보문고’의 경우 전체 32개 1차 카테고리에서 12개 카테고리가 복합항목 카테고리이다. 예를 들면, ‘가정/생활’, ‘경제/경영’, ‘기술/공학’, ‘시/에세이’ 등이 있다. 복합항목은 ‘경제/경영’과 같이 경제학과 경영학을 한 카테고리에 둑어서 전체 카테고리 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나, ‘취업/수험서’와 같이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3.1.2 자료형태 및 이용자 카테고리

인터넷서점의 카테고리는 자료 형태(만화, 잡

지, 전집 등), 특정 이용자 대상자료(대학교재, 수험서/자격증, 유아, 어린이, 청소년, 초/중/고 등 참고서 등) 등 학문 카테고리와는 다른 카테고리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특정 이용자 대상 자료 카테고리는 이용자 검색 편의를 위한 카테고리 구성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수험생은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해 여러 카테고리를 돌아다닐 필요 없이 '수험서/자격증' 카테고리 한 곳에서 모두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이용자의 검색 편의성 외에, 관련된 자료를 한 곳에 모아 놓아서 여러 자료의 구매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3.1.3 카테고리 구성의 혼돈

'교보문고'는 특이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1차 카테고리에 '대학교재'가 있지만, '경제/경영', '과학', '기술/공학', '인문' 등 주요 학문분야의 카테고리의 2차 카테고리에 '대학교재'가 또 있다. 동시에 '대학교재' 1차 카테고리 안에도 '인문', '경제/경영', '기술공학' 등의 2차 카테고리가 중복해서 나타난다.

교보문고와는 약간 다르지만 '예스24'도 '자연과 과학' 카테고리에 '물리학' 카테고리가 존

재하며, '대학교재(전문서적) > 자연과학 계열' 카테고리에 '물리학'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이는 '물리학' 카테고리가 여러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잘못된 카테고리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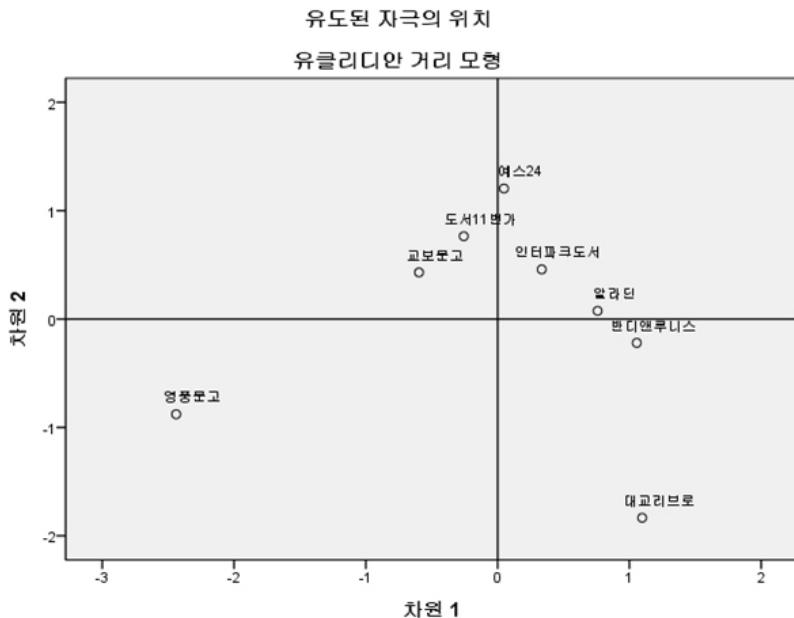
3.2 카테고리 일치도

3.2.1 완전일치도

인터넷서점 사이에서 카테고리의 완전일치도는 9.3~62.7%로 다양하였다. 완전일치도가 가장 높은 서점 집단은 '예스 24'와 '도서11번가'로 이들 사이의 완전일치도는 62.7%가 되었다(〈표 2〉 참조). 이들 서점들은 카테고리 수가 24개와 25개로 비슷하여, 완전일치도가 높았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완전일치도가 가장 낮은 서점 집단은 '영풍문고'와 '대교리브로'로 9.3%에 불과하였다. 두 인터넷서점 사이에 완전히 일치하는 카테고리는 '경제 경영'과 '잡지' 2개 카테고리에 불과하였다. 완전일치도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SPSS를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법의 그림으로 표시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에 의하면, 영풍문고와 대교리브로는

〈표 2〉 인터넷서점 카테고리 완전일치도(%)

	예스24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대교리브로	인터넷파크도서	도서11번가
예스24		37.9	17.6	33.9	40.7	20.0	43.1	62.7
교보문고			27.5	44.1	36.7	21.4	50.9	42.1
영풍문고				13.0	17.0	9.3	18.2	22.7
반디앤루니스					36.4	31.4	42.3	34.6
알라딘						30.8	45.3	37.7
대교리브로							28.6	24.5
인터넷파크도서								48.0
도서11번가								



〈그림 1〉 다차원척도법 이용한 완전일치도

다른 6개 인터넷서점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둘 사이도 많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6개의 인터넷서점은 서로 유사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3.2.2 부분일치도와 통합일치도

카테고리의 부분일치도는 23.5~54%로 다양

하였다. 부분일치도가 가장 높은 서점 집단은 '예스24'와 '대교리브로'로 54%이었으며, 부분일치도가 가장 낮은 서점 집단은 '예스24'와 '인터파크도서'로 23.5%이었다. 완전일치도와 부분일치도를 합한 통합일치도를 비교하면 42.6~90.6% 이었다. 통합일치도가 가장 높은 서점 집단은 '알라딘'과 '인터파크도서'로 90.6%이었으며, 통

〈표 3〉 인터넷서점 카테고리 부분일치도(%)

	예스24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대교리브로	인터파크도서	도서11번가
예스24		25.9	35.6	37.7	40.7	54.0	23.5	27.5
교보문고			27.5	44.1	40.0	44.6	34.5	24.1
영풍문고				43.5	25.5	37.2	38.6	27.3
반디앤루니스					38.2	39.2	44.2	38.5
알라딘						50.0	45.3	41.5
대교리브로							51.0	36.7
인터파크도서								30.0
도서11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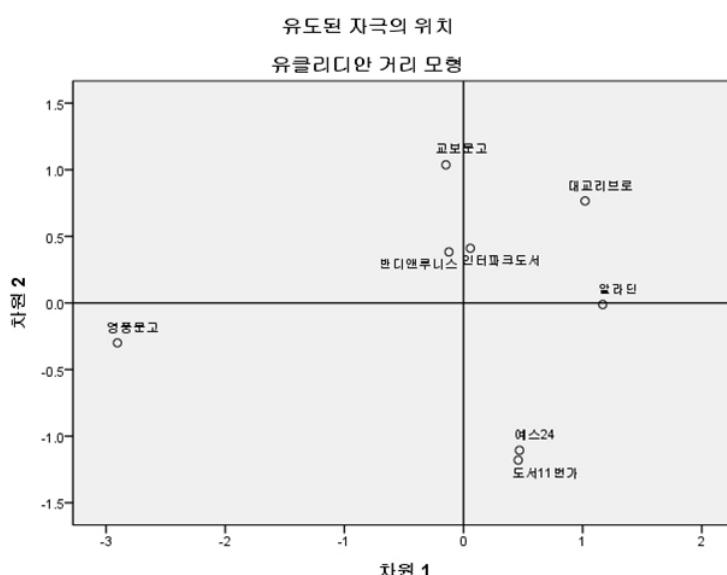
합일치도가 가장 낮은 서점 집단은 '영풍문고'와 '알라딘'으로 42.6%이었다.

통합일치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크게 세 집단으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스24'와 '도서11번가'가 한 집단,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인터파크도서', '알라딘', '대교리브로'가 한 집단, 그리고 '영풍문고'로 구분된다. <표 4>에 의하면, '알라딘'과 '인터파크도서' 카테고리

통합일치도는 90.6%이었으나, <그림 2>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통합일치도가 낮은 것처럼 보인다. 이는 '알라딘'과 다른 7개 인터넷서점과의 통합일치도와 '인터파크도서'와 다른 7개 인터넷서점과의 통합일치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로, 절대적인 통합일치도는 90.6%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서점과 통합일치도가 낮아 거리가 떨어져 있다.

<표 4> 인터넷서점 카테고리 통합일치도(%)

	예스24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대교리브로	인터파크도서	도서11번가
예스24		63.8	53.2	71.6	81.4	74.0	66.6	90.2
교보문고			55.0	88.2	76.7	66.0	85.4	66.2
영풍문고				56.5	42.6	46.5	56.8	50.0
반디앤루니스					74.6	70.6	86.5	73.1
알라딘						80.8	90.6	79.2
대교리브로							79.6	61.2
인터넷파크도서								78.0
도서11번가								



<그림 2> 다차원척도법 이용한 통합일치도

〈표 5〉 인터넷서점 카테고리

예스 24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국내도서] 26권주	[국내도서] 32권주	[국내도서] 19권주	[도서] 27권주
가정과 생활, 건강/취미/실용, 국어와 외국어/사전, 대학교재(전문서적), 만화, 문학, 비즈니스와 경제, 사회, 수험서/자격증, 어린이, 여행과 지리, 역사와 문학, 예술/대중문화, 유아, 인문, 인물, 자기관리, 자연과 과학, 잡지, 전집, 종교, 중고전집, 청소년, 컴퓨터와 인터넷, 초등참고서, 중고등참고서	소설, 시/에세이, 인문, 역사/문화, 종교, 정치/사회, 경제/경영, 자기계발, 유아, 어린이, 어린이영어, 어린이전집, 초등학습, 중/고등학습, 청소년, 예술/대중문화, 여행/기행, 취미/스포츠, 가정/생활, 요리, 잡지, 건강, 만화, 외국어, 사전, 과학, 기술/공학, 컴퓨터/IT, 취업/수험서, 정부간행물, 대학교재, 한국소개도서		소설, 시/에세이/기행, 인문/교양/철학, 역사/신화/문화, 종교, 사회/정치/법률, 경제/경영, 자기계발, 취업/자격증/수험서, 외국어/사전, 가정/생활/요리, 건강/의학/미용, 유아, 어린이, 초등학습, 중고등학습, 청소년, 예술/대중문화, 여행/취미/레저, 잡지, 만화, 컴퓨터/인터넷, 자연과학/공학, 대학교재, 아동전집, 서양서, 일본서
알라딘	대교리브로	인터파크도서	도서11번가
[국내도서] 28권주	[국내도서] 24권주	[국내도서] 25권주	[도서] 25권주
유아, 어린이, 전집/중고전집, 청소년, 좋은부모, 초등참고서, 중/고등참고서, 여행, 가정/요리/뷰티, 건강/취미/레저, 사전/기타, 잡지, 만화, 고전, 소설/시/희곡, 에세이, 인문학, 사회과학, 역사, 과학, 예술/대중문화, 종교/역학, 경제경영, 자기계발, 외국어, 컴퓨터/인터넷, 대학교재, 수험서/자격증	경제/경영, 인문/교양, 산문/에세이/논픽션, 소설/시, 가정/생활/요리, 인물/전기/평전, 건강/취미/스포츠, 자기계발, 사전/백과/연감, 잡지, 사회과학, 장르소설, 순수과학, 종교/신학, 취업/수험/자격증, 참고서, 역사/지리학, 청소년, 예술/대중문화, 여행/해외정보, 외국어학습, 컴퓨터/인터넷, 응용과학, 대학교재	소설, 경제경영, 시 · 에세이, 자기계발, 사회과학, 인문, 역사와 문화, 자연과 과학, 예술 · 대중문화, 종교 · 역학, 유아, 가정과 생활, 아동, 청소년 초등학습	문학, 어린이, 유아, 전집, 비즈니스/경제, 자기계발, 초/중등참고서, 고등참고서, 국어/외국어, 가정/생활, 건강/취미/실용, 예술/대중문화, 대학교재, 만화, 사회과학, 수험서, 여행, 역사/문화, 외국도서, 인문, 자연과학, 잡지, 종교, 청소년, 컴퓨터/스마트폰

4. 카테고리 분류

4.1 KDC 분류기호 일치

인터넷서점에서 판매되는 도서가 ISBN 내용분류기호에 적합한 카테고리에 분류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도서의 ISBN 내용분류기호 적합성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도서의 ISBN 내용분류기호가 적합성 판단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부여한 KDC 분류기호와 비교하였다. ISBN 내용분류기호와 KDC 분류기호가 일치하는 도서를 KDC 주류 기준으로 구분하여 카테고리 분류 일치 여부를 비교하였다.

4.1.1 사회과학 분야

사회과학 분야의 도서 중 ISBN 내용분류기호와 국립중앙도서관의 KDC 분류기호가 동일한 도서는 대부분 유사한 카테고리에 분류되어 있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명이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의 ISBN 내용분류기호는 320(경제학, 경영학)이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325(경영-수필집)에 분류하였다. 대부분의 인터넷서점은 ‘자기관리’(혹은 자기계발), ‘비즈니스와 경제’ 카테고리에 분류하였지만, 대교리브로는 ‘인문/교양’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다. 대교리브로는 ‘말씨’에 주목하여 ‘언어학’에 분류하였다고 추정된다. ‘자기관리’(혹은 자기계발) 카테고리는 다양한 학문영역을 포함하는 주제로 KDC에서는 경영을 비롯한 철학, 종교 등의 분야에도 존재해서, 인터넷서점에서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리되어 있다.

서명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2011)		
ISBN 내용분류기호	320(경제학, 경영학)	KDC	325.04(경영-수필집)

서점명	카테고리	비고*
예스24	자기관리 > 화술/협상/회의진행 비즈니스와 경제 > CEO/비즈니스맨 > 화술/협상/회의진행	
교보문고	자기계발 > 화술/협상 > 대화와화술	
영풍문고	경제, 경영 > 처세 > 처세	
반디엔루니스	자기계발 > 성공/처세 > 인생처세술 > 처세일반 자기계발 > 화술/협상 > 대화와화술 자기계발 > 화술/협상 > 설득/협상	
알라딘	자기계발 > 실용능력 계발 > 화술/협상/프레젠테이션	
인터파크도서	자기계발 > 대화/심리/협상	
도서11번가	비즈니스/경제 > 자기관리 > 실용능력 계발 > 화술/협상/프레젠테이션 비즈니스/경제 > CEO/비즈니스맨 > 화술/협상/프레젠테이션	
대교리브로	인문/교양 > 언어학	미적용

* ISBN 내용분류기호 적용 여부로 적용하지 않는 서점에는 ‘미적용’으로 표시함

서명이 ‘사고하는 방법’의 ISBN 내용분류기호는 370(교육학)이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370(교육학)에 분류하였다. 교보문고, 반디엔루니스,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교육학’ 카테고리에 분류하였지만, 예스24와 알라딘은 ‘철학’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다. 이 도서를 판매하는 5개 서점에서 모두 ‘철학’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는데, 이는 서명에 ‘사고’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이를 철학분야로 생각했다고 추정된다. 특이한 점은 알라딘의 경우, ‘인문학 > 철학 일반’ 카테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다.

서명	사고하는 방법(2011)		
ISBN 내용분류기호	370(교육학)	KDC	370(교육학)

서점명	카테고리	비고*
교보문고	인문 > 교육학 > 교과교육과정 > 기타과목 대학교재 > 인문 > 교육학 대학교재 > 인문 > 철학 인문 > 대학교재 > 교육학 인문 > 대학교재 > 철학 인문 > 철학 > 철학이론 > 철학개론	
반디앤루니스	인문/교양/철학 > 철학 > 철학의 이해 인문/교양/철학 > 교육학 > 교육이론 > 교육학일반	
인터파크도서	사회과학 > 교육 > 교육방법 인문 > 철학의 이해 > 철학의 이해/철학사	
예스24	인문 > 인문일반 > 인문/교양 일반 인문 > 철학/사상 > 철학의 이해/철학사	미적용
알라딘	어린이 > 사회/역사/철학 > 철학	미적용

* ISBN 내용분류기호 적용 여부로 적용하지 않는 서점에는 '미적용'으로 표시함

서명이 '미래전장'의 ISBN 내용분류기호는 390(국방, 군사학)이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394(군사시설 및 장비)에 분류하였다. 이 도서는 대부분의 인터넷서점에서 ISBN 내용분류기호에 적합한 카테고리에 분류하였으나, 영풍문고와 반디앤루니스의 경우는 '정부간행물'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다. 영풍문고는 '정치, 법률 > 국방/군사 > 군사학', 반디앤루니스는 '사회/정치/법률 > 국방/군사학 > 국방/군사학 일반' 카테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발행처가 '한국국방연구원'이어서 정부간행물로 분류하였다고 추정된다.

서명	미래전장(2011)		
ISBN 내용분류기호	390(국방, 군사학)	KDC	394(군사시설 및 장비)

서점명	카테고리	비고*
예스24	사회 > 미래예측 사회 > 국방/군사 사회 > 정치/외교 > 외교/국제정치	
교보문고	사회 > 미래예측 사회 > 국방/군사 사회 > 정치/외교 > 외교/국제정치	
알라딘	사회과학 > 국방/군사학 > 전쟁사	
대교리브로	사회과학 > 국방/군사	
인터파크도서	사회과학 > 국방/군사 > 군사 전략/무기/병법	
도서11번가	사회과학 > 국방/군사 > 전략/무기/전쟁사	
영풍문고	정부간행물 > 기타 > 기타간행물	미적용
반디앤루니스	경제/경영 > 정부간행물	미적용

* ISBN 내용분류기호 적용 여부로 적용하지 않는 서점에는 '미적용'으로 표시함

4.1.2 순수과학분야

순수과학분야의 도서는 대부분 인터넷서점에서 유사한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서명이 '날씨와 역사'의 ISBN 내용분류번호는 400(순수과학일반)이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453.9(기후학)에 분류하였다. 모든 인터넷서점에서 '지구과학' 분야의 카테고리에 분류하였지만, 오직 영풍문고는 '자연 > 지구과학 > 기상/기후학' 카테고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연 > 과학일반 > 자연교양물'에 분류하였는데, 이는 ISBN 내용분류번호만 생각하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경우, ISBN 내용분류번호, KDC 분류번호, 서명이 명백하게 동일한 경우에는 큰 차이 없이 동일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다.

서명	날씨와 역사(2011)		
ISBN 내용분류번호	400(순수과학일반)	KDC	453.9(기후학)

서점명	카테고리	비고
예스24	자연과 과학 > 지구과학 > 기상학/기후	
교보문고	과학 > 과학이론 > 과학의 역사 과학 > 지구과학 > 기상학/기후학	
영풍문고	자연 > 과학일반 > 자연교양물	
반디앤루니스	자연과학/공학 > 자연과학 > 지구과학 > 대기과학/기후학	
알라딘	역사 > 테마로 보는 역사 > 문명/문화사 과학 > 지구과학 > 기상학/기후	
대교리브로	순수과학 > 지구과학/해양학 > 기상학/기후	
인터파크도서	인문 > 인문교양 > 인문교양일반 자연과 과학 > 지구과학/해양학 > 기상/기후	
도서11번가	자연과학 > 지구과학 자연과학 > 과학교양서 > 과학사/기술사	

4.1.3 기술과학분야

기술과학분야의 도서는 여러 인터넷서점에서 ISBN 내용분류번호와 다른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다. 사례로 서명이 '기후변화 교과서'의 ISBN 내용분류번호는 530(공학, 공업일반, 환경공학)이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539.91(공해, 환경공학-환경행정)에 분류하였다. 대부분의 인터넷서점에서 '환경공학' 대신 '환경'과 관련된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예스24는 '자연과 과학 > 공학 > 환경/도시 공학' 카테고리가 존재하지만, '생태/환경'에 분류하였다. 알라딘과 도서11번가는 환경공학 카테고리가 '대학교재 > 공학계열' 카테고리 하위에 있어서 다른 카테고리인 '사회과학'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분류담당자가 판단하기에 이 도서가 '대학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과학'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다고 본다.

서명	기후변화 교과서: 기후변화와 한반도 생태계의 현황과 전망(2011)		
ISBN 내용분류기호	530(공학, 공업일반, 환경공학)	KDC	539.91(환경공학-환경행정)

서점명	카테고리	비고*
영풍문고	공학 > 환경공학 > 환경일반	
반디앤루니스	자연과학/공학 > 기술공학 > 환경/도시공학 > 환경공학 사회/정치/법률 > 사회학 > 사회문제	
예스24	사회 > 생태/환경 > 생태/환경 일반 사회 > 생태/환경 자연과 과학 > 생명과학 > 생태학/환경학	미적용
교보문고	기술/공학 > 환경/소방/도시/조경 > 환경문제 > 미래환경 과학 > 지구과학 > 기상학/기후학	미적용
알라딘	사회과학 > 환경/생태관계서적 > 환경문제 사회과학 > 환경/생태관계서적 > 환경실태보고 사회과학 > 환경/생태관계서적 > 환경학 일반 과학 > 생명과학 > 생태학	미적용
대교리브로	순수과학 > 지구과학/해양학 > 기상학/기후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문제 > 환경문제	미적용
인터파크도서	자연과 과학 > 지구과학/해양학 > 기상/기후 자연과 과학 > 생명과학 > 생태학/환경학	미적용
도서11번가	사회과학 > 환경 > 환경문제 자연과학 > 생명과학 > 생태학 사회과학 > 사회 > 사회문제/사회운동/NGO	미적용

* ISBN 내용분류기호 적용 여부로 적용하지 않는 서점에는 '미적용'으로 표시함

4.1.4 언어분야

언어분야 도서는 대부분 유사한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다. 서명이 '말이 인격이다'의 ISBN 내용분류 기호는 710(한국어)이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715.9(한국어문법)에 분류하였다. 대부분의 인터넷 서점에서 '한국어' 관련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다. 하지만, 알라딘은 '인문학 > 기호학/언어학 > 한국어/한문' 카테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 관련 카테고리와 '교양 인문학' 카테고리에 분류한 것은 잘못된 분류라 본다. 이 도서는 '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문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명	말이 인격이다: 품격을 높이는 우리말 예절(2009)		
ISBN 내용분류기호	710(한국어)	KDC	715.9(한국어문법)

서점명	카테고리	비고*
예스24	인문 > 인문일반 > 인문/교양 일반 인문 > 기호학/언어학 > 언어학의 이해 > 한국어	

교보문고	인문 > 언어학 > 국어학 > 국어이야기	
영풍문고	인문 > 문학 > 국어학	
반디앤루니스	인문/교양/철학 > 인문학일반 > 국어학 > 국어학개론	
대교리브로	인문/교양 > 인문학의 이해 > 인문학 산책 인문/교양 > 언어학 > 언어학의 이해 인문/교양 > 국어학 > 국어학의 이해	
인터파크도서	인문 > 기호학/언어학 > 언어학의 이해	
도서11번가	국어/외국어 > 국어 > 국어/우리말 인문 > 언어/기호학	
알라딘	소설/시/희곡 > 문학의 이해 > 우리말사전 소설/시/희곡 > 문학의 이해 > 한글이야기 인문학 > 교양 인문학	미적용

* ISBN 내용분류기호 적용 여부로 적용하지 않는 서점에는 '미적용'으로 표시함

4.1.5 문학분야

서명이 '그들이 사는 세상'의 ISBN 내용분류기호는 810(한국문학)이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812.68(한국문학-텔레비전각본)에 분류하였다. 대부분의 인터넷서점 문학 분야의 카테고리는 KDC 외는 약간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나리오' 카테고리는 1차 카테고리인 '예술/대중문화' 안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교보문고는 '문학' 카테고리가 따로 없고, '소설', '시/에세이'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시나리오'는 '예술/대중문화'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예스24는 '문학 > 시/희곡 > 희곡/시나리오' 카테고리가 존재하였지만, '예술/대중문화'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서점에서는 시대적으로 유행하며, 이용자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서명	그들이 사는 세상(2009)		
ISBN 내용분류기호	810(한국문학)	KDC	812.68(한국문학-텔레비전각본)

서점명	카테고리	비고*
알라딘	예술/대중문화 > 영화 > 시나리오/시나리오작법 소설/시/희곡 > 희곡 > 한국희곡	
도서11번가	문학 > 희곡 > 한국희곡	
예스24	예술/대중문화 > TV/라디오	미적용
교보문고	예술/대중문화 > 영화 > 드라마/시나리오 > 시나리오집	미적용
영풍문고	예체능 > 연극/영화 > 시나리오작법및작품	미적용
반디앤루니스	예술/대중문화 > 영화 > 시나리오	미적용
대교리브로	예술/대중문화 > 대중문화 예술/대중문화 > 시나리오, 이렇게 쓴다	미적용
인터파크도서	예술/대중문화 > 대중문화 > TV/라디오방송 예술/대중문화 > 영화 > 시나리오	미적용

* ISBN 내용분류기호 적용 여부로 적용하지 않는 서점에는 '미적용'으로 표시함

서명이 ‘누가 제노비스를 죽였는가’의 ISBN 내용분류번호는 860(프랑스문학)이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863(프랑스소설)에 분류하였다. 대부분의 인터넷서점에서 ‘프랑스소설’에 적합한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다. 하지만, 반디앤루니스는 ‘소설 > 기타외국소설 > 프랑스소설’ 카테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미소설’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는데, 이는 오류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소설 작품과 같이 명확한 도서는 대부분 적합한 카테고리에 분류되고 있었다.

서명	누가 제노비스를 죽였는가(2011)		
ISBN 내용분류번호	860(프랑스문학)	KDC	863(프랑스소설)

서점명	카테고리	비고*
예스24	문학 > 소설 > 프랑스소설 문학 > 역사/장르문학 > 스릴러	
교보문고	소설 > 프랑스소설	
영풍문고	문학 > 외국소설 > 유럽소설	
반디앤루니스	소설 > 영미소설 > 현대소설 소설 > 영미소설 > 추리/범죄/스릴러소설	미적용
알라딘	소설/시/희곡 > 프랑스소설 소설/시/희곡 > 액션/스릴러소설 소설/시/희곡 > 세계의 문학 > 프랑스문학	
대교리브로	소설/시 > 외국소설 > 프랑스소설 장르소설 > 추리/스릴러 > 외국 추리/스릴러	
인터파크도서	소설 > 장르소설 > 추리/미스터리소설 > 외국추리소설 소설 > 외국소설 > 프랑스소설	
도서11번가	소설 > 외국소설 > 프랑스소설 장르소설 > 추리/미스터리소설	

* ISBN 내용분류번호 적용 여부로 적용하지 않는 서점에는 ‘미적용’으로 표시함

서명이 ‘그리고 파티는 끝났다’의 ISBN 내용분류번호는 840(영미문학)이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843.6(영미소설)에 분류하였다. 이 도서는 호주 작가의 작품으로 대부분의 인터넷서점에서 잘못된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다. 예스24를 비롯한 6곳에서 ‘영미소설’이 아닌 다른 나라 소설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카테고리 기준이 ‘언어’가 아닌 ‘국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ISBN 내용분류번호는 적용되지 않고, KDC의 분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서명	그리고 파티는 끝났다(2011)		
ISBN 내용분류번호	840(영미문학)	KDC	843.6(영미소설)

서점명	카테고리	비고*
예스24	문학 > 소설 > 기타 국가의 소설	미적용
교보문고	소설 > 기타나라소설 > 기타나라소설	미적용

영풍문고	문학 > 외국소설 > 유럽소설	미적용
반디앤루니스	소설 > 영미소설 > 현대소설 소설 > 영미소설 > 문학상수상작품	
알라딘	소설/시/희곡 > 세계의 소설 > 기타 국가 소설 소설/시/희곡 > 해외문학상 수상작 > 기타문학상 소설/시/희곡 > 세계의 문학 > 기타세계문학	미적용
대교리브로	소설/시 > 외국소설 > 영미소설	
인터파크도서	소설 > 외국소설 > 기타 외국소설	미적용
도서11번가	소설 > 외국소설 > 기타나라소설	미적용

* ISBN 내용분류기호 적용 여부로 적용하지 않는 서점에는 '미적용'으로 표시함

4.2 KDC 분류기호 불일치

도서의 ISBN 내용분류기호와 KDC 분류기호가 차이가 있는 경우, 카테고리 분류 결과는 ISBN 내용분류기호와 KDC 분류기호가 동일한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차이점을 KDC 주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4.2.1 철학분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되는 많은 철학분야의 도서는 ISBN 내용분류기호와 KDC 분류기호가 달랐다. 서명이 '촘스키처럼 생각하는 법'의 ISBN 내용분류기호는 300(사회과학일반)이지만,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21.6(인식론-신념)에 분류하였다. 교보문고를 비롯한 5개 인터넷서점에서는 ISBN 내용분류기호에 적합하게 '사회과학'(혹은 정치/사회)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다. 하지만, 예스24, 도서11번가는 '사회과학' 카테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문'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다. 이는 서명의 '촘스키'가 언어학자이기 때문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언어학 카테고리가 포함된 '인문'에 분류하였다고 판단된다. 영풍문고의 경우 '인문' 카테고리에 '사회학'과 '언론학/매스컴' 카테고리가 있음에도 이곳에 분류하지 않았다. 이 도서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의 분류기호를 적용한 인터넷서점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서명이 '생각하는 법'이라 하지만, 부서명으로 '숫자, 언어, 미디어' 등이 더 중요한 분류기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서명	촘스키처럼 생각하는 법: 말과 글을 단련하고 숫자, 언어, 미디어의 거짓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기술(2010)		
ISBN 내용분류기호	300(사회과학일반)	KDC	121.6(인식론-신념)

서점명	카테고리	비고*
교보문고	정치/사회 > 언론/신문/방송 > 언론이론 > 미디어론 정치/사회 > 사회학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반디앤루니스	인문/교양/철학 > 인문학일반 사회/정치/법률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알라딘	사회과학 > 비평/칼럼 > 국제사회비평/칼럼 사회과학 > 비평/칼럼 > 언론비평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대교리브로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비평/칼럼 인문/교양 > 인문학의 이해 > 인문학 산책	
인터파크도서	사회과학 > 언론/미디어 > 언론일반/언론이론 인문 > 기호학/언어학 > 논리학의 이해	
예스24	인문 > 논리학 인문 > 인문일반 > 인문/교양 일반 인문 > 기호학/언어학 > 언어학의 이해 > 언어학 이론	미적용
영풍문고	인문 > 교양사상 > 교양사상	미적용
도서11번가	인문 > 인문/교양일반 > 인문학 비평/논단 인문 > 언어/기호학	미적용

* ISBN 내용분류기호 적용 여부로 적용하지 않는 서점에는 '미적용'으로 표시함

서명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ISBN 내용분류기호는 330(사회학, 사회복지, 사회문제)이지만,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26(철학적 인간학)에 분류하였다. 모든 인터넷서점에서 ISBN 내용분류기호와 다른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는데, ISBN 내용분류기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서명을 보면 철학분야로 판단할 수 있어서 대부분 '철학'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다. 하지만, 예스24, 영풍문고, 도서11번가는 각각 '철학' 카테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양'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다.

서명	인간이란 무엇인가(2011)		
ISBN 내용분류기호	330(사회학, 사회복지, 사회문제)	KDC	126(철학적 인간학)
예스24	인문 > 인문일반 > 인문/교양 일반 문학 > 에세이 > 외국 에세이 문학 > 에세이 > 삶의 자세와 지혜		미적용
교보문고	인문 > 철학 > 교양철학		미적용
영풍문고	인문 > 교양사상 > 교양사상		미적용
알라딘	인문학 > 인문 에세이 인문학 > 서양철학 > 서양철학 일반 인문학 > 서양철학 > 근대철학 > 근대철학 일반		미적용
반디앤루니스	인문/교양/철학 > 인문학일반 인문/교양/철학 > 철학 > 서양철학 > 현대철학		미적용
인터파크도서	인문 > 철학의 이해 > 철학일반/철학에세이		미적용
도서11번가	인문 > 인문/교양일반 > 인문교양/상식		미적용

* ISBN 내용분류기호 적용 여부로 적용하지 않는 서점에는 '미적용'으로 표시함

4.2.2 사회과학분야

사회과학분야 도서 중 일부는 ISBN 내용분류기호가 문학으로 분류되는 도서가 있었다. 서명이 '영

재를 만든 책 배달부'의 ISBN 내용분류기호는 810(한국문학)이지만,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378(사회교육)에 분류하였다. 이 도서를 한국문학 카테고리에 분류한 인터넷서점은 교보문고를 비롯한 4곳이었다. 반면에 예스24를 비롯한 4곳은 ISBN 내용분류기호를 적용하지 않았다. 서명이 자녀교육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인터넷서점에서는 자녀교육에 관련된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다. 하지만 대교리브로는 ISBN 내용분류기호를 적용하여, '한국에세이'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다. 출판사에서 이 도서의 ISBN 내용분류기호를 810으로 선택한 이유는 부서명에 '교육기'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라 본다.

서명	영재를 만든 책 배달부: 15개국 언어 영재 재형아빠의 감동 교육기(2011)		
ISBN 내용분류기호	810(한국문학)	KDC	378.9(사회교육-가정교육)

서점명	카테고리	비고*
교보문고	가정/생활 > 자녀교육 > 자녀교육일반서 시/에세이 > 나라별 에세이 > 한국에세이	
반디앤루니스	시/에세이/기행 > 에세이 > 실화/수기/일기 가정/생활/요리 > 육아/자녀교육 > 자녀교육 일반 가정/생활/요리 > 육아/자녀교육 > 지능개발/학습지도	
대교리브로	산문/에세이/논픽션>한국에세이	
인터파크도서	가정과생활 > 자녀교육/육아 > 독서/글짓기 교육 시/에세이 > 에세이/산문 > 교육에세이	
예스24	가정과생활 > 자녀교육 > 학습법일반 가정과생활 > 자녀교육 > 영재/지능개발	미적용
영풍문고	취미/실용 > 여성실용 > 자녀교육/육아	미적용
알라딘	좋은부모 > 초등 자녀 > 교육방법/철학 좋은부모 > 교육 > 교육에세이	미적용
도서11번가	가정/생활 > 자녀교육/좋은부모	미적용

* ISBN 내용분류기호 적용 여부로 적용하지 않는 서점에는 '미적용'으로 표시함

서명이 '마키아벨리의 전술론'의 ISBN 내용분류기호는 920(유럽사)이지만,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392.4(군사학-전술)에 분류하였다. 예스24를 비롯한 5곳에서는 '서양사' 카테고리에 분류하였으며, 관련된 다른 카테고리에도 분류하였다. 특히, 여러 인터넷서점에서 마키아벨리를 정치가, 철학가, 전략가 등으로 판단하여 관련된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다.

서명	마키아벨리의 전술론(2011)		
ISBN 내용분류기호	920(유럽사)	KDC	392.4(군사학-전술)
서점명	카테고리	비고*	
예스24	역사와 문화 > 서양사/서양문화 인문 > 서양철학 > 서양 고중세 철학 사회 > 정치/외교 > 정치/외교학 일반 사회 > 국방/군사 > 전쟁사		
교보문고	역사/문화 > 서양사 > 유럽사 > 로마사 국내도서 > 인문 > 철학 > 서양철학자 > 마키아벨리		

알라딘	역사 > 테마로 보는 역사 > 전쟁사 역사 > 서양사 > 서양중세사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인문학 > 서양철학 > 중세철학 > 중세철학 일반	
인터넷도서	역사와 문화 > 서양사 > 서양중세사 역사와 문화 > 서양사 > 서양고대사 사회과학 > 국방/군사 > 전쟁사 사회과학 > 정치/외교	
도서11번가	역사/문화 > 서양사 > 중세서양사 인문 > 철학 > 서양철학 > 서양고대철학 사회과학 > 정치/외교 > 정치학/외교 이론 사회과학 > 국방/군사 > 전략/무기/전쟁사	
영풍문고	인문 > 교양사상 > 교양사상	미적용
반디앤루니스	인문/교양/철학 > 철학 > 서양철학 > 고대/그리스철학 사회/정치/법률 > 정치/외교학 > 정치/외교학 일반 사회/정치/법률 > 국방/군사학 > 전쟁사	미적용
대교리브로	사회과학 > 정치/외교 > 국가론	미적용

* ISBN 내용분류기호 적용 여부로 적용하지 않는 서점에는 '미적용'으로 표시함

4.2.3 기술과학분야

기술과학분야 도서 중 ISBN 내용분류기호와 KDC 분류기호가 다르면 인터넷서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다. 서명이 '법정에 선 과학'의 ISBN 내용분류기호는 330(사회학, 사회복지, 사회문제)이지만,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502(기술과학-잡지)에 분류하였다. 반디앤루니스는 ISBN 내용분류기호를 적용하였지만, 다른 인터넷서점들은 이를 적용하여 분류하지 않았다. 예스24를 비롯한 7곳은 이 도서를 '법'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다. 서명에 '법정'이란 단어가 있어서 '법' 카테고리 분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추정된다. 출판사에서 ISBN 내용분류기호를 부여할 때, 이 도서를 법학분야 혹은 과학분야로 생각하기는 어려웠으리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법학분야는 법률서적을, 과학분야는 보다 전문적인 과학서적을 상상하기 때문에 과학 분야에 분류하지 않았다고 본다.

서명	법정에 선 과학(2011)		
ISBN 내용분류기호	330(사회학, 사회복지, 사회문제)	KDC	502(기술과학-잡지)

서점명	카테고리	비고*
반디앤루니스	인문/교양/철학 > 인문학일반 사회/정치/법률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예스24	사회 > 법 > 일반인을 위한 법이야기	미적용
교보문고	정치/사회 > 법학 > 법학일반 > 법학일반서	미적용
영풍문고	정치, 법률 > 법학 > 법학일반(법학개론, 법철학, 법전, 총람 등)	미적용
알라딘	과학 > 기초과학/교양과학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인문학 > 교양 인문학	미적용

대교리브로	사회과학 > 법 > 법조인/법률 이야기 자연과 과학 > 과학일반 > 과학사상/철학 사회과학 > 법 > 법률의 이해	미적용
도서11번가	사회과학 > 법 > 법학 일반 자연과학 > 과학교양서 > 과학사/기술사 사회과학 > 법 > 생활법률	미적용

* ISBN 내용분류기호 적용 여부로 적용하지 않는 서점에는 '미적용'으로 표시함

4.2.4 언어분야

서명이 '천자문던'의 ISBN 내용분류기호는 910(아시아사)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711.47(한자교습서)에 분류하였다. 인터파크도서와 도서11번가는 ISBN 내용분류기호를 적용하여 '동양사'에 분류하고 다른 카테고리에 부차적으로 분류하였다. 인터넷서점에서 주로 사용한 카테고리는 '기호학/언어학'(5곳), '고전'(3곳)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분류한 711.47(한자교습서)과 관련된 카테고리에 분류한 곳은 대교리브로 한곳에 불과하였다. 다른 인터넷서점에도 '한자'와 관련된 카테고리가 존재했는데, 예스24는 '국어와 외국어/사전 > 한자/옥편 > 한자/고사성어/쓰기', 교보문고는 '어린이 > 논술/한글/한자 > 한자교재', '인문 > 언어학 > 한문학 > 실용한자' 등 다양한 곳에 분산되어 있었다. 이처럼 도서 내용과 관련된 카테고리가 존재하지만, 인터넷서점에서 실제 분류한 카테고리가 다른 것은 서점의 분류담당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분류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서명	천자문던: 신화·역사·문명으로 보는 125가지 이야기(2009)		
ISBN 내용분류기호	910(아시아사)	KDC	711.47(한자교습서)

서점명	카테고리	비고*
인터넷파크도서	역사와 문화 > 동양사 > 중국사 > 중국고대/중세사 인문 > 기호학/언어학 > 언어사/언어학사전 역사와 문화 > 문화 > 중국문화 인문 > 인문교양 > 고전/옛글읽기	
도서11번가	인문 > 언어/기호학 역사/문화 > 세계문화 > 세계문화의 이해 역사/문화 > 동양사 > 중국사	
예스24	인문 > 인문일반 > 인문/교양 일반 인문 > 기호학/언어학 > 언어학의 이해 > 동양어	미적용
교보문고	인문/교양 > 언어/기호학	미적용
영풍문고	인문 > 동양철학 > 동양고전	미적용
반디앤루니스	인문/교양 > 언어/기호학	미적용
알라딘	고전 > 동양고전사상 > 기타 동양고전사상 인문학 > 문학/문화이론 > 중국문화	미적용
대교리브로	인문/교양 > 문화론/지역학 > 문화이야기 외국어학습 > 한문/한자 > 한문/한자 일반	미적용

* ISBN 내용분류기호 적용 여부로 적용하지 않는 서점에는 '미적용'으로 표시함

5. 카테고리 도서 분류 개선방안

5.1 문제점 및 특징

인터넷서점 사이에서 판매도서의 카테고리 분류를 조사한 결과, 분류가 매우 다양하였다. 출판사에서 ISBN 내용분류기호를 판매도서에 적합하게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인터넷서점의 카테고리 분류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를 문제점과 특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5.1.1 문제점

도서의 ISBN 내용분류기호가 적합하게 부여된 경우이다.

첫째, ISBN 내용분류기호와 상관없이 서명에 따라 카테고리에 분류되고 있었다. 이는 인터넷서점에 따라 ISBN 내용분류기호를 참고하지 않고, 분류담당자 독자적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적합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명과 유사한 카테고리에 분류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예스24와 알라딘은 다른 서점과 달리 자체적으로 카테고리를 결정하는 경향이 많았다.

둘째, 일반적으로 인터넷서점에서는 기술과학 분야의 도서를 많이 취급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 기술과학 분야의 카테고리는 ‘대학교재’ 카테고리 속에 ‘공학’ 카테고리로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카테고리의 특성상 일부 공학 도서는 서명에 따라 카테고리가 결정되기도 하는데, 특히 ‘환경’ 관련 분야는 사회과학과 순수과학에 더 많이 분류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언어분야 도서가 문학 카테고리에 분류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인터넷서점 분류담당

자의 분류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문학에 있어서도 ISBN 내용분류기호는 문학이 언어별로 구분되지만 많은 인터넷서점에서는 국가별 구분을 하고 있었다. 즉, ISBN 내용분류의 기준과 분류담당자의 분류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

넷째, 문학관련 ISBN 내용분류기호와 인터넷서점의 문학관련 카테고리는 차이가 많았다. 인터넷서점 문학관련 카테고리는 세분화되어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유행에 적합하게 새로운 주제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ISBN 내용분류기호는 인터넷서점에서 판매도서를 카테고리에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도서의 ISBN 내용분류기호가 적합하지 않게 부여된 도서의 경우이다.

첫째, 철학과 관련된 도서 중 ‘교양’에 분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 ‘인문에세이’, ‘철학에세이’ 카테고리를 활용하고 있었다.

둘째, 사회과학 도서라 하더라도 에세이 형식의 도서는 문학 분야의 ISBN 내용분류기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출판사에서 ISBN 내용분류기호 부여에서 발생하는 오류 중 하나로, 역사적인 인물의 사상을 기술한 도서를 역사 분야에 기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인터넷서점에서는 역사 혹은 내용에 적합한 카테고리에 분류하고 있었다.

5.1.2 특징

도서의 ISBN 내용분류기호가 적합하게 부여된 경우이다.

첫째, 인터넷서점에서 카테고리에 도서를 분류할 때, 해당 도서의 ISBN 내용분류기호를 적

용하기도 하지만 서명과 관련된 카테고리에도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도서관의 분류체계와 달리 인터넷서점의 도서 분류는 여러 카테고리에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여러 곳에 분류하고 있다. 이때 분류되는 카테고리는 주제 카테고리도 있지만, 주 이용 대상 카테고리(예, 유아, 어린이, 청소년), 혹은 자료 형태 카테고리(예, 정부간행물, 대학교재, 수험서)에 분류하기도 한다.

둘째, 일부 사회과학 분야의 도서인 경우 주제가 명백하여도 발행처에 따라 '정부간행물' 카테고리를 선택한다. 이는 오프라인 서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간행물을 찾는 이용자를 위한 카테고리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정부간행물' 한곳에만 분류하지 않고, 관련된 주제 카테고리에 분류하는 더 적합하다.

셋째, 순수과학 분야의 도서 중 ISBN 내용분류기호, KDC 분류기호, 서명이 동일하면, 대부분 인터넷서점에서 동일한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다. 순수과학의 특성상 서명이 주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처럼 서명과 주제가 다른 경우가 거의 없다.

다음으로 ISBN 내용분류기호가 적합하지 않게 부여된 도서의 경우이다.

첫째, 철학분야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ISBN 내용분류기호가 판매도서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서명이 ISBN 내용분류기호를 반영하고 있다면, ISBN 내용분류기호에 따른 카테고리에 분류한다. 하지만, ISBN 내용분류기호가 서명과 유사하지 않다면 서명에 따라 분류한다. 이 결과는 인터넷서점 분류담당자는 해당 도서의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언어분야의 도서는 역사, 인문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서점 분류 담당자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다양한 카테고리에 분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2 개선방안

5.2.1 개선방안 방향설정

인터넷서점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편리하고 쉽고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인터넷서점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카테고리가 필요하며, 둘째, 카테고리는 판매하는 도서를 잘 구분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도서를 쉽게 브라우징 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하며, 셋째, 각 인터넷서점에서는 판매하는 도서를 적합한 카테고리에 잘 분류하여야 한다. 인터넷서점 이용자들은 이들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값싼 인터넷서점을 골라 익숙하게 카테고리를 브라우징 하여 원하는 도서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인터넷서점에서 적합한 카테고리에 도서를 분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출판물 카테고리' 개발이 필요하다.

인터넷서점 스스로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출판물 카테고리를 개발하여 공동으로 도서 분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출판계에서 사용하는 BISAC 분류체계(BISG 2012)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BISAC 분류체계는 도서출판연구그룹(Book Industry Study Group)에서 개발한 것으로 분류코드와 주제명표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명표목표는 51개의 카테고리로 1차 구분하고, 각 카테고리별로 세분화하고 있다. 출판사에서는 이 주제명표목표의 주

제명을 도서 뒤표지 상단에 기술하여 출판하고 있으며, 서점에서 이 주제명을 도서 분류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BISAC 분류체계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 ISBN 내용분류기호이다. ISBN 내용분류기호는 출판사에서 ISBN을 등록할 때, 해당 도서에 적합한 주제 분야를 부여한다.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인터넷서점에서 판매되는 일부 도서의 ISBN 내용분류기호는 국립중앙도서관의 KDC 분류기호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출판사 담당자들이 분류전문가가 아니어서 ISBN 내용분류기호를 잘못 배정하거나 혹은 잘못 이해해서 발생하였다고 본다. 출판사 담당자를 위해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는 ISBN 등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만, 출판사 담당자들이 도서관용으로 만들어진 KDC의 요약인 ISBN 내용분류기호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출판된 도서를 100가지로 구분된 기호로 분류하는 것은 분류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힘들다. 또한, 출판사에서 적합한 ISBN 내용분류기호를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인터넷서점의 분류담당자가 ISBN 내용분류기호를 카테고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잘못 분류될 수 있다. 즉, ISBN 내용분류기호가 나타내는 개념의 용어가 카테고리 용어와 일치하지 않을 때, 인터넷서점의 분류담당자는 달리 판단할 수 있어 적합하지 않은 카테고리에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서점에 사용할 수 있는 출판물 카테고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5.2.2 출판물 카테고리 개발 고려사항

출판물 카테고리는 인터넷서점 혹은 오프라

인서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출판계에서 개발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도서의 이용 측면에서 볼 때, 출판물 카테고리는 도서관 분류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효과적 이므로, 상호 변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출판물 카테고리 개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물 카테고리는 ISBN 내용분류기호보다 더 세분화되어야 하지만, 인터넷서점의 카테고리 수보다는 많지 않아야 한다. ISBN 내용분류기호의 경우 100가지로 구분되어 있지만, 출판량이 많은 사회과학 분야는 그 구분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리하여, 인터넷서점의 분류담당자는 판매도서를 적합한 카테고리에 분류할 때, ISBN 내용분류기호는 효용성이 거의 없는 설정이었다. 그러므로 해당 도서의 주제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수준의 세부적인 카테고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즉, 일반인이 출판물 카테고리를 보고 바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둘째, 출판물 카테고리는 최대 3단계로 개발되어야 한다. 인터넷서점에서 출판물 카테고리를 쉽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3단계가 적합하다. 예를 들면, BISAC 주제명표목표에 ‘비즈니스와 경제 / 전자상거래 / 인터넷마케팅’처럼 최대 3단계의 계층구조가 필요하다.

셋째, 출판물 카테고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현재 인터넷서점에서 사용하는 카테고리 명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인터넷서점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하여, 카테고리 분류담당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도서 구입자도 카테고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3 인터넷서점의 고려사항

출판물 카테고리가 잘 개발되고 출판되는 도서에 카테고리가 표시된다 하더라도 인터넷서점에서 출판물 카테고리를 잘 활용해야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효과적으로 브라우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인터넷서점의 분류담당자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분류담당자는 분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인터넷서점 분류담당자는 판매도서의 출판물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적합한 카테고리에 분류할 수 있는 분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출판물 카테고리는 출판되는 도서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카테고리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서점에서 사용하는 카테고리와 완전하게 일치할 수 없다. 특히, 인터넷서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형태 카테고리(예, 잡지, 정부간행물 등)나 이용 대상자 카테고리(예,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는 카테고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출판물 카테고리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필요하다면, 인터넷서점 분류담당자가 판단하여 적합한 카테고리에 분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서점에서는 도서를 카테고리에 분류할 때 단수 카테고리가 아닌 복수 카테고리에 분류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판매도서를 여러 카테고리에 분류하면,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제 카테고리와 자료형태 카테고리, 이용 대상자 카테고리를 복수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터넷서점 카테고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카테고리에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인터넷서점의 카테고리 구조는 비논리적인 부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면, 교보문고의 '대학교재' 카테고리와 같이 여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카테고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학교재 > 경제/경영', '경제/경영 > 대학교재'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한 카테고리가 계층구조가 다른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는 분류의 배타성 원칙에 어긋난다. 한 도서가 여러 카테고리에 분류되는 것은 접근성에 효과적이지만, 동일 카테고리가 여러 곳에 배치되는 것은 공간의 낭비가 된다. '경제학 대학교재'를 분류한다면, '대학교재' 카테고리에 분류되고, '경제/경영' 카테고리에도 분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6. 결론 및 제언

6.1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서점들의 카테고리 및 판매도서의 분류의 특징을 파악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터넷서점들 사이의 1차 카테고리 차이점을 조사하기 위해 일치도 범인을 사용하였다. 조사결과 인터넷서점들 사이의 1차 카테고리의 차이는 42.5~90.6% 이었다. 영풍문고와 알라딘은 일치도가 42.5%로 가장 낮아 두 서점간 차이점이 가장 커지만, 알라딘과 인터파크도서의 일치도는 90.6%로서 차이점이 거의 없었다. 인터넷서점들 사이의 카테고리 분류의 차이점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당 도서의 ISBN 내용분류기호

를 기준으로 유사한 카테고리에 분류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도서의 카테고리 분류는 일부에서만 ISBN 내용분류기호와 일치하였다. 대신, 도서 주제와 무관하게 발행처에 따라 '정부간행물'로 분류되거나, 언어 분야의 도서는 문학 카테고리에 분류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소설은 언어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국별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또한, 철학 분야의 도서는 교양 카테고리에 분류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사회과학 도서라 하더라도 에세이 형식의 도서는 문학에 분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터넷서점의 카테고리의 차이점과 카테고리 분류의 문제점과 특징을 기초로 인터넷서점의 카테고리 분류 개선방안으로 출판물 카테고리 개발을 제안하였다. 출판물 카테고리는 인터넷서점의 카테고리 개선에 사용될 수 있으며, 도서에 카테고리를 표시하면 인터넷서점 분류담당자가 도서 분류에 활용할 수 있다. 출판물 카테고리는 기존의 ISBN 내용분류기호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도록 더 세분화되어야 하지만, 도서관의 분류체계처럼 세분화되어서는 안된다. 출판물 카테고리는 3단계 이하 계층구조로 개발되는 것이 적합하며, 카테고리 명칭은 현재 인터넷서점에서 사용하는 카테고리 명칭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동시에 인터넷서점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분류담당자는 분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카테고리 구조 역시 논리적인 체계로 개선되어

야 한다.

6.2 제언

도서관 분류체계는 전통적으로 자료의 배가와 검색을 위해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인터넷서점의 분류체계는 도서관과 차이가 많을 것이다. 인터넷서점의 분류체계는 도서관 분류체계처럼 배열의 목적이 아니라 검색이 목적이므로 도서관과는 다른 관점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출판물 카테고리는 도서관 분류체계 및 주제명표목표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서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출판물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형태의 출판물 카테고리가 구축되어야 할 것인지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인터넷서점과 도서관의 연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인터넷 서점용으로 만들어지는 출판물 카테고리는 도서관 분류체계 및 주제명표목표와 상호 호환될 수 있어야 한다. 출판사, 서점, 도서관은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각자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서점과 도서관은 동일한 도서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겠지만, 상호 연결되어 이용자는 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 출판물 카테고리와 도서관의 분류체계가 서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연구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민혜영, 이성숙. 2012. 인터넷 서점의 사회과학분야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43(1): 41-62.
- [2] 배영활, 오동근, 여지숙. 2008. 인터넷포털과 인터넷서점의 어린이자료 분류시스템의 비교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321-344.
- [3] 윤효정. 2004. 인터넷 서점의 아동도서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제11회』, 173-180.
- [4] 정연경. 2001. 인터넷 서점의 주제별 분류체계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5(3): 17-34.
- [5] 정현욱, 강혜영, 김선남. 2005. 인터넷 서점 이용자와 주관성에 관한 Q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2): 197-220.
- [6] 정현욱, 강혜영. 2006. 대학생의 인터넷 서점 이용동기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3): 59-73.
- [7] 한국출판인회의. 2012. 도서유통 판매 채널별 현황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출판인회의.
- [8] BISG Subject Heading List. [online]. [cited 2012.12].
<<http://www.bisg.org/what-we-do-20-73-bisac-subject-headings-2012-edition.php>>.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Min, Hye-Young, & Lee, Sung-Sook. 2012.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social science field in internet bookstore."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3(1): 41-62.
- [2] Bae, Yeong-Hwal, Oh, Dong-Geun, & Yeo, Ji-Suk. 2008. "A comparative analysis on classification systems for children's materials of internet portals and online bookstor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3): 321-344.
- [3] Yun, Hyo-Jung. 2004.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cheme of child book in internet book store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11: 173-180.
- [4] Chung, Yeon-Kyoung. 2001. "A study on a design of subject classification schemes for internet bookstor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5(3): 17-34.

- [5] Jung, Huyn-Wook, Kang, Hye-Young, & Kim, Sun-nam, 2005. "Q analyses of the structure of internet booksstore users' subjectiv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2): 197-220.
- [6] Jung, Hyun-Wook, & Kang, Hyu-Young. 2006. "A study on motivations and determinants of college students' on-line bookstore utiliz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3): 59-73.
- [7] Korean Publisher Society. 2012. *Survey Report on Book Distribution Channel*. Seoul: Korean Publisher Society.

